

# 전쟁과 평화조차도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과정에 비춰본 전쟁과 평화

김호동 |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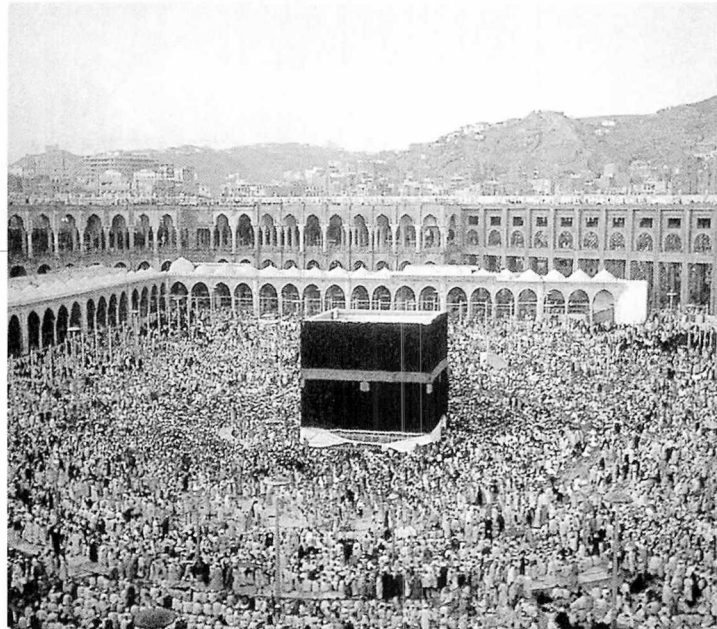
이슬람 신도들에게 평화는 희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지고의 가치이자 믿음의 굳건한 기둥이다. 그런데 왜 비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이슬람이 호전적인 종교로 비쳐왔던 것일까. 이는 이슬람의 역동성에서 기인한다. 국가의 성공과 패창이 곧 이슬람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성·속의 일체성에서 이런 역동성이 나온다.

오늘날 이슬람권 나라를 여행하다가 현지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특유한 인사말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살람 알레이쿰!(Salam allaykum)” ‘살람’은 ‘평화’를, ‘알레이쿰’은 ‘당신에게’를 뜻한다. ‘이슬람’(islam)이라는 말도 실은 ‘살람’과 어원이 같은 말이니, 그 원래의 뜻은 알라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에 복종함으로써 신과의 ‘평화’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그것을 신봉하는 신도(무슬림)들에게 평화는 희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지고의 가치이자 믿음의 굳건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 지하드는 보편적 세계종교의 열망에서 비롯돼

그렇다면 이슬람은 어찌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전적인 종교로 비쳐져왔던 것일까. 최근 뉴욕 테러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국내에서는 이슬람이야말로 평화의 종교며 종교적 교리나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말도 서구인들의 악의에 찬 편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과거 이슬람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는 하겠지만, 그 같은 지적과 논의가 단지 이슬람을 변호하고 그 평화성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지니는 역동성의 본질을 놓치고 말 것이다.

이슬람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인류사회를 서로 대립되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슬람을 신봉하고 지배자에 의해 율법 샤리아(shariah)가 수호되고 있는 ‘이슬람의 땅’(Dar al-Islam)이요,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전쟁의 땅’(Dar



이슬람은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삶을 규정하는 생활방식이기도 하다. 사진은 카바신전의 순례자들.

al-Harb)이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이교도나 우상숭배자들이 지배하는 후자는 궁극적으로 소멸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슬림들은 ‘성전’ 즉 지하드(jihad)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성전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도 생겨나기 때문에, 때로는 대립되는 두 세력 사이에 ‘협약’(sulh)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정전(停戰)일 뿐 항구적인 평화라고 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 이슬람의 승리에 의해 종식돼야 할 대상이다.

후자는 이런 이슬람의 교리와 세계관에 대해 이 종교의 호전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경의 구절이나 “이슬람에는 변경이 없다”는 호메이니의 말은 모두 인류가 궁극적으로 기독교나 이슬람으로 귀의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천명일 뿐이다. 따라서 이슬람의 ‘지하드’라는 것도 이 종교가 지니는 생애적인 호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포교에 지리적·종족적 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적 세계종교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이슬람의 땅’을 확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인 지하드가 다분히 군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어원적으로 ‘노력하다’ ‘분투하다’는 뜻에서 나왔고 시어파 일부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며 지하드를 주로 정신적·영적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언행록 《하디쓰(Hadith)》를 비롯한 초기 이슬람 시대의 문헌들은 이 말이 대부분 군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성전에 군사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이교도들에 대해서 행하던 약탈전 가즈브(ghazw)조차도 성

전으로 미화됐다. 비잔티움의 변경을 공격하던 투르크인들은 스스로 '성전사' 가지(ghazi)로 칭했고, 이들이 후일 오스만제국의 기초를 놓게 됐던 것이다.

**성·속의 통합에서 이슬람의 군사적 성격 기원해**

이처럼 무슬림은 이교도와 전쟁을 벌일 때 그것이 공격적이건 방어적이건 모두 지하드라고 불러왔는데, 이는 기독교와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스페인의 재정복전이나 십자군 전쟁에서 보듯이 기독교권에서도 성전을 외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차라리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이후 서구세력이 식민지 지배를 확장해 나갈 때 성전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는 왜 군사적 성격을 지닌 성전이 그토록 강조돼왔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슬람의 탄생과 팽창의 역사는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622년 무함마드가 히즈라(hijra: '이주')를 한 직후, 메카에서 그를 따라온 '이주자'(muhajirun)와 메디나에서 그를 섬기기 시작한 '조력자'(ansar)들을 근간으로 해서 최초의 무슬림 공동체가 탄생했다. 아랍어로 움마(ummah)라고 불리는 이 소수집단의 생존은 메카측과 벌인 전쟁의 성패에 달려 있었다. 이들은 624년 메카로 돌아가는 대상단을 공격한 바드르(Badr)의 전투, 625년 아부 수피얀(Abu Sufyan)이 지휘하는 3천명의 메카군과 조우한 우후드(Uhud)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으로써 아라비아 반도 서부에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한 뒤 그를 대신해 움마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선출됐고 그에게는 '할리파'(즉 칼리프)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이는 'Khalifa Rasul Allah' 즉 '알라의 사도 [무함마드]의 대리인'이라는 뜻이었다. 장로들의 선출에 의해 즉위한 소위 정통 할리파 4대가 끝난 뒤, 할리파의 지위는 우마이야(Umayyah)와 압바스(Abbas) 가문에 의해 세습되는 체제로 바뀌었다. 비록 선출의 형식은 변화됐지만 할리파는 여전히 '공동체의 수장'이자 '신도들의 수령'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잃지 않았고, 이들의 주도하에 이슬람은 불과 1세기도 안되는 기간 동안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소아시아와 이라크·이란·중앙아시아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초기역사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탄생 직후부터 로마제국의 탄압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에게"라는 말처럼 종교와 세속은 엄격히 분리됐고, 천상의 왕국은 지상의 왕국과 엄격히 구분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순교'라는 것도 세속권력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던지는 방어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할리파제가 상징적으로 말해주듯이 처음부터 성(聖)과 속(俗)은 통합돼 있었다. 할리파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성공과 팽창이 곧 이슬람의 발전과 번영이었다. 이슬람의 '순교'는 이런 팽창과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맞는 장렬한 죽음을 의미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저 종교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슬람에서는 율법 샤리아(shariah)가 유일한 법이었고, 그것이 민사·형사의 세속적 규율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슬람권에 대한 위협은 종교적 위협으로 인식돼**

이슬람이 보여주는 이런 성·속 일체성이야말로 이 종교가 지닌 가장 강력한 역동성이었다. 개종자들은 단순히 그 종교적 교리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 규정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금식과 기도, 순례와 자선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무슬림들과 유사한 생활방식을 갖게 되고, 마침내 지구상의 다른 무슬림 공동체와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은 단지 하나의 종교일 뿐 아니라 신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변화시키고 규율하는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이슬람으로 개종한 집단이 다른 종교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바로 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슬람권에 가해지는 현실적인 위협은 곧 종교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정치·군사적인 공격이나 방어를 쉽게 종교적 각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권력자나 일부 특정집단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이용하는 대중동원의 논리가 되기도 한다. 설사 비이슬람권과 전혀 비종교적인 성격의 대결에서조차도 이슬람의 성전론이 고개를 들고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13세기 압바스조의 붕괴와 함께 할리파제는 소멸됐고 현실적으로 정교일치의 제도적 장치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술탄은 여전히 할리파를 자처했다. 그것은 세속군주의 지위만으로는 무슬림 공동체의 지배자로서 합법성을 완벽하게 갖출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적 혁명과 변혁이 대부분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슬람의 탄생과 발전의 과정에서 형성된 교리적 내용과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전쟁과 평화조차도 무슬림들의 마음 속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김효동** 교수는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황하에서 천산까지》, 역서 《이슬람 문명사》 《마르크 홀로의 동방견문록》 등을 펴냈고, 논문으로 <몽골제국의 형성과 전개>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군주권> 등이 있다.